

## 北 6차 핵실험 ‘레드라인’ 넘었다

풍계리 규모 5.7 인공지진  
北 “ICBM 수소탄 성공”  
文대통령 NSC 전체회의  
최고로 강한 응징방안 지시  
한미합참도 군사 대응 논의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이후, 1년이 되  
어가는 3일 제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이날 핵 실험에 대해 “ICBM장착  
용 수소탄 시험”이라고 직접 밝혔다. 북  
한이 실제로 ‘레드라인’을 넘어섬에 따라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 정세가 요  
동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국합참의장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가  
장 빠른 시간내에 한미 군사적 대응 방안  
을 준비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참  
이 밝혔다.

3일 합참참모본부와 기상청 등에 따  
르면 이날 낮 12시29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44km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합참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풍계리 일  
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에  
대해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밝  
혔다.

기상청은 이날 핵실험 규모가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비교해 최대 6  
배, 지난해 1월에 발생한 4차 핵실험에  
비하면 11배 위력이며, 그동안 6차례 있  
었던 북한의 핵실험 중 역대 최대 규모  
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이날 곧바로 핵실험 사실을 밝히  
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  
소탄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 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30분(평양시간 오후 3시) 중대 보도  
를 통해 “오전 정치국 상무위가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 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채택했으며 김정은 위원  
장이 시일 단행 명령서에 친필 서명했  
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의 핵  
과학자들은 이날 12시 우리나라 북부 실

합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  
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과 관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  
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  
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후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외  
청에서 대외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계획  
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으  
로 포기하고 고립시킬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  
며 “동시에 동맹 차원의 연합방위태  
를 토대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적  
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도발에 만  
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  
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 생  
명과 국가안보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  
사회의 거둔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  
다 더 강한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오늘  
하의에서 북핵 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  
시킬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  
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NSC 회의 전후에 맥매스  
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두 차  
레에 걸쳐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  
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으며, 이날 시일  
내에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로 더욱 강  
력한 한미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남뉴스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 ‘2017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지난 1~3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일 개막식이 열린 상화동산 특설무대에서 내빈들이 영호남의 상생·화합을 기원하며 통일·공감·상생 등이 쓰여진 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웅 광주일보사장과 여창환 매일신문사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영호남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일보와 대구의 매일신문이 주최·주관했다. /대구=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웃음꽃 핀 상생장터...문화로 하나된 영호남

‘2017 영호남 문화대축전’ 사흘간 대구 상화공원에서 성료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주도하는  
‘2017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구 수성못 상화공원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18면>

광주일보사와 대구 매일신문이 주최·  
주관한 이번 문화대축전에는 행사 기간동  
안 영호남 지역 주요인사들과 1만여명의  
지역민들이 참가, 성황을 이뤘다.  
지난 1일 오후 2시 상화공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영웅 광주일보 사장과 여창  
환 매일신문 사장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  
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종식 광주경  
제부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여영  
현 경북농협본부장,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등 영호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  
리를 빛냈다.  
이번 축사에서 김영웅 사장은 “대구와  
광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무감

으로 일어섰던 의리의 고장”이라며 “북핵  
문제 등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지금 영  
호남이 화합 축제를 열게 돼 의미가 깊다”  
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여창환 사장은  
“문화대축전과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양 지역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길 바란  
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를 주  
제로 열린 행사장 홍보관엔 호남 30개·영  
남 29개 등 모두 79개의 농수축산품 부스  
가 설치됐고 각 부스에는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려는 참가자들이 발걸음이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또 영호남 문화예술공연, 레  
크리에이션 한마당, 농특산물 전원경매,  
청소년 공연 등 영호남 상생발전을 다지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영호남 문화대축전은 2014년 서  
울시청 앞 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며  
2015년 대구 두류공원, 2016년 광주 광주  
전에 이어 올해는 대구에서 개최됐다. 내  
년엔 다시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문기자 eij6621@kwangju.co.kr

## 트럼프 “한미FTA 폐기 여부 이주부터 논의” 백악관 참모들에 준비 지시 WP “무역전쟁·동맹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  
를 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  
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하리케인 ‘하비’ 수해를 본 텍사스 주 휴  
스턴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  
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단순  
히 FTA 일부 개정이나 수정, 재협상을 넘  
어 협정 자체의 파기를 준비 중이라는 WP  
보도를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  
통령이 협정 폐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이 촉발되는 것은 물론 대북  
공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한미동맹의 근  
간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WP는 트  
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withdraw-  
al)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트  
럼프 대통령이 FTA에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협정에 남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  
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WP에 밝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 양국이 북핵 프로그램  
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  
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  
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업포’를  
놓는 고도의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  
도 나온다. 다만 WP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  
관, 캐리 큰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  
악관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대  
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이 트럼  
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는 것  
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실험, 미  
사일 도발 등으로 점점 더 적대적이 되는  
시점에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트  
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폐기하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논의도 거부하거  
도 한다면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WP에 “논의가 진  
행 중이지만 현시점에서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직 늦지 않았다.  
조금 늦은 바캉스를 위한  
무안출발 해외여행!**

**하나Pack 클래식** AVPF13\_TWA  
전일정 5성급호텔 +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총 상품가격 **8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7월 27일(목)~10월 29일(일) / 날짜별 요일 상이  
티웨이항공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30상당) 포함

**하나Pack 캐주얼** APPF10\_8Y6  
세계 3대 화이트 비치  
보라카이 아잘리아리조트 4일·5일  
총 상품가격 **6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50 / 선택경비 있음

7월 29일(토)~9월 27일(수) / 날짜별 요일 상이  
팬퍼시픽 항공  
크리스탈코브 호핑투어(\$60 상당), 세일링보트  
(\$15 상당), 오일마사지(\$15 상당) 포함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셀카파티스튜디오 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전시일자 : 17년 10월 15일  
장 소 :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정정 통해 예약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정정**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상품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착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시장] 여행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호일 2금호별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현명한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재항공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nto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의 2 ● 여행 자제 3 ● 철수 권고 4 ● 여행 금지